

# 대행 스님 법어집 '러시아어본' 발간

### 한마음국제문화원, 세계 각국어 불서번역 진력

한마음국제문화원(원장 대행)은 대행 스님의 법어를 정리해 발간한 <건널 강이 어디 있느냐>를 러시아어로 번역해 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불교서적이 러시아어로 번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눈길을 끈다.



건널 강이 어디 있느냐  
대행 스님 법어집  
옥사나 파이줄리나 번역  
암리 타루스 펴냄

<건널 강이 어디 있느냐> 러시아어본은 러시아 출신의 영어교사이자 번역가인 옥사나 파이줄리나가 번역을 맡았고 국제연등선원의 러시아 출신 일교·일조 스님이 감수를 맡아 1년간 작업해 나온 책이다.

<건널 강이 어디 있느냐> 한글본은 한마음선원에서 발간하는 <한마음요전>과 법문시리즈 <허공을 걷는 길>의 일부를 발췌해 재구성 한 책이다. <한마음요전>은 대행 스님이 1970년 초반부터 1991년까지 20여년간 법문한 내용의 핵심을 주제별로 간추려 놓은 것으로 순서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주제를 선택해 읽어나가도 가르침의 요체를 맛볼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한마음요전>과 비슷하나, 일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전에는 없으나 다른 법문에서 다루어진 주요 주제들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내용으로 수정·보완했다.

한마음국제문화원은 "지난해 러시아 전역에 서점을 운영하는 대형출판사인 암리타루스(Amrita-Rus)와 계약을 맺고 올해 책을 출간했다"며 "정신계·영성관련 서적을 주로 다루는 이 출판사는 러시아 전역과 전 세계 러시아어인자들이 있는 곳에서도 서점을 운영하고 있어 한국불교와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더 쉽게 전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원은 2005년 도서전 참가를 계기로 미국의 위즈덤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No River To Cross(건널 강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2007년 출간했다. 곧이어 2009년에는 스페인의 카일라스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출간했다. 또한 독일의 골드만 아카나-랜덤하우스 출판사는 큰스님 법문 중 들려졌던 예화들을 모아놓은 이야기책 <내마음은 금부처>를 2008년 독일에서 출간했다.

이 밖에 한마음국제문화원은 2011년 중국 최대 출판사 중 하나인 종교문화출판사를 통해 중국어번역으로 출간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의 암리타루스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2012년 2월 <건널 강이 어디 있느냐>를 출간했다.

한마음국제문화원은 세계의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도리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문 번역을 목적으로 1997년 설립됐다. 이곳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행 스님의 법문을 영어책으로 먼저 만들어 출판하고 그 뒤 독일어 스페인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외국어 버전으로 번역하고 있다. 세계를 이끄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가르침을 알려 인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라고 가르친 대행 스님의 뜻에 따라서이다.

문화원 소속 팀원들은 10명이 채 되지 않는 소수정예다. 이들은 대행 스님의 법문을 각각 1차로 영문번역 한 뒤 팀장인 청고 스님이 2차 번역을 한다. 이후 모두 다 같이 3차 번역을 하고 청고 스님이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화원은 이런 작업을 거쳐 <건널 강이 어디 있느냐>를 비롯해 <만가지 꽃이 피고 만가지 열매 익어> <내 마음은 금부처> <생할 속의 참선수행(시리즈)> 등 10여 개의

영문번역서를 냈다. 한마음국제문화원은 영문번역서를 2005년부터 세계 7500여 개 출판사가 참가하는 명망있는 도서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 참가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해 불교적 가르침을 담은 대행 스님의 법문으로만 구성된 책을 들고 부스를 개설해 매년 참가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행 스님의 <뜻으로 쓴 천수경>을 시화집 형식으로 출간한 <만가지 꽃이 피고, 만가지 열매 익어>는 2008년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도서박람회에 출품돼 현지 출판사들과 언론 및 방문객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국불교의 해외포교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일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천수경을 통



### 한국불교 러시아어역 최초

### '암리 타루스'는 세계적 출판사

### 영·독·스페인·중국어로 큰 반향

### 이슬람교 등과도 출판 협의중

해 한국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용이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행 스님의 책 <만가지 꽃이 피고, 만가지 열매 익어>는 2009년 130년이 넘는 전통을 지닌 독일의 디더리히스(Diederichs) 출판사와 계약을 맺어 눈길을 끌었다. 삽화가 들어가는 그림책은 출판하지도 않는 출판사의 총편집장 눈에 띄어 책을 내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책은 2010년 9월 독일의 레드닷,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IF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해 쾌거를 이루었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규모 면에서도 세계 최대일 뿐 아니라 전 세계 디자이너들로부터 존경받는 꿈의 무대이기 때문이다.

청고 스님은 "리비아 등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슬람문화내의 출판사와 가톨릭 정교국가 출판사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문의해오고 있다"며 "형식이 엄매이지 않으며 자신의 종교를 바꾸지 않아도 마음 수행을 할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데에서 대행 스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에도 전달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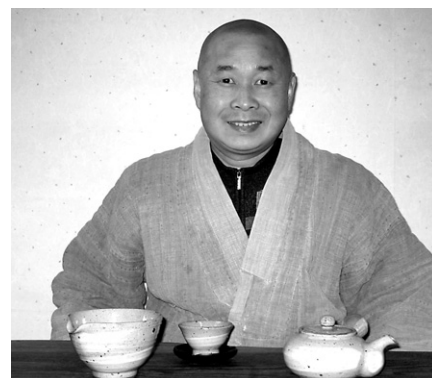
이 책은 <관세음보살>을 정명하는 것은 자력을 바탕으로 하는 타력이며, 관세음보살의 힘을 생각하는 것은 타력을 바탕으로 한 자력이다. 염불수행은 자력과 타력을 회통하는 수행법이다"라고 강조한다. <관음경>이 '관세음보살' 일심정명을 말하지만 심층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 참선·염불·간경 같은 모든 수행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관세음보살을 정명하는 것은 자력을 바탕으로 하는 타력이며, 관세음보살의 힘을 생각하는 것은 타력을 바탕으로 한 자력이다. 염불수행은 자력과 타력을 회통하는 수행법이다"라고 강조한다. <관음경>이 '관세음보살' 일심정명을 말하지만 심층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 참선·염불·간경 같은 모든 수행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tyunbul.com

# 염불은 자력·타력 회통 수행법

### 석암 스님이 말하는 관음기도 요령



기도는 불자들에게 자못 상반된 의미로 비춰지기 쉽다. 참선수행을 수행의 최상에 두거나 깨달음을 강조하는 분들의 경우 "기도는 곧 기복불교"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 반면에 대부분 불자들은 기도의 생활화를 신령의 지료로 삼고, 기도의 힘으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한다.

책 <그대가 보살입니다>는 관음선원을 장간해 관음염불선을 보급해 온 석암 스님이 펴낸 <관음경>과 관음기도 안내서이다. <관음경>은 범화경, 즉 묘법연화경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독송되는 제25품 '관세음보살보문품'을 따로 독립시켜 부르는 명칭이다.

책은 스스로 부처가 되고자 하는 자력 신앙이나, 부처님께 의지해 공덕지음을 이루려는 타력신앙으로 나아가길 것인가하는 논란은 일축한다.

저자는 "관세음보살을 정명하는 것은 자력을 바탕으로 하는 타력이며, 관세음보살의 힘을 생각하는 것은 타력을 바탕으로 한 자력이다. 염불수행은 자력과 타력을 회통하는 수행법이다"라고 강조한다. <관음경>이 '관세음보살' 일심정명을 말하지만 심층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 참선·염불·간경 같은 모든 수행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묻는다. "10년, 20년을 수행했다고 한들 스스로를 자비와 지혜로 채우지 않는다면, 방아깨비가 헛방아질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라고.

저자는 <관음경>의 핵심을 "관세음보살의 일심정명을 통해 고난과 고통을 벗어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평등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라는 가르침이다"라고 정리한다.

책 곳곳에는 출가 이후 한결 같이 관음



그대가 보살입니다  
석암 스님 글  
우리출판사  
9500원

기도 수행으로 정진해 온 저자의 진솔한 수행담이 담겨 있다.

"(기도를 하던 중에) 심한 몸살이 찾아왔습니다. 법당에서 기도하다 쓰러지고, 앉아서 정진하다 쓰러지고... 그렇게 정진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내게 밝은 빛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몸살은 나았고, 며칠 후 '관세음보살'을 정명하는데 문득 뚝 끊어진 소식이 왔습니다."

저자는 강조한다. 실천수행이 뒤따르지 않는 깨달음은 무의미하며, 그것이 곧 관세음보살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이다.

"관음염불선은 관세음보살을 정명해서, 마음 안에서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끊임 없이 각인시켜서 저절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일념이 지속되면 내가 관음이다, 관음이 내가 되어서 관세음보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관세음보살의 마음으로 보살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조동섭 기자**

# "감사합니다"가 행복 부른다

### '빛' 선생님이 말하는 행복의 비결

"잠재 속에 참기름이 있듯이 우리 마음 속에 우주 근원의 마음이 있습니다."

빛명상센터 정광호 회장은 빛명상을 통한 행복전도사이자. 그는 큰 빛과 만났지 23년, 빛명상센터 설립 15주년을 맞아 행복 비결을 정리한 책 <행복순환의 법칙> 개정증보판을 펴냈다.

책은 ▷우연 같은 필연 ▷반아라, 소원이 이뤄질 것이다 ▷열려라, 행복이 가득할 것이다 ▷맞이하라, 풍요로운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행복 순환의 법칙의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페이지마다 행복 메시지가 가득 넘친다. 저자가 대중에게 설파해 온 빛은 근원의

마음을 뜻한다. 저자는 말한다.

"모든 사람 안에는 근원의 마음이 있다. 그게 '빛'이다. 종교적 호칭은 중요하지 않다.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믿는 자체가 아니라 믿는 방법이 중요하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실제 우리의 손이 행한 바가 중요하다."

저자는 이 세상은 원래 하나의 행복공동체였다고 말한다.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공존하는 행복공동체였지만, 인간의 이기심이 그 행복을 깨뜨렸다고 말한다. 저자는 귀땀한다.



행복순환의 법칙  
정광호 지음  
로대 펴냄  
1만2800원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에서 소원하는 것들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소원을 청할 때도 마음자세가 중요합니다." **조동섭 기자**

# 읽기 쉽게 편집한 '금강경'

<금강경>은 부처님과 제자 수보리와 대화로 구성된 경전이다. 조계종 소의경전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불자들에게 널리 읽히는 대표 경전 가운데 하나이다. <신편금강경>은 치국 스님이 새로 엮은 책이다.

<금강경>을 접하게 된 것이 커다란 행운이라는 저자는 <금강경> 내용이 전반부, 후반부에 걸쳐 중복된 것을 정리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새로 펴냈다.

책은 구마라집의 한역본 <금강경>을 기본으로 기존의 대화들을 주제·내용별로



신편금강경  
이생노구 지음  
이일출판 펴냄  
9000원

갈거나 비슷한 것끼리 묶어 분류한 다음, 중복된 것들을 삭제하고 나머지를 갖고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럽도록 다시 배열했다. **조동섭 기자**

3간접집 목조건물 : 9500×7000×4500mm / 가격 : 평당 150만원  
다그라스목재기둥 180×180×2470 / 다그라스목재도리 170×170  
다그라스목재서까래 100×100 / 목재판재 120×18 전동강판기와  
주춧돌 300×300×300 \* 황토흙 ALC블럭 내화벽돌 판넬 자유 선택

원하는 평수 가능  
토목공사 부가세별도

◆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조립식 평상  
1800×1030×400mm  
가격 29만원 → 할인가 19만원  
폴리프로필렌 자체 기 등 110×90×400  
도리 80×35  
중간대 80×35  
마루판 210×12

부가세  
운송비  
별도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지구산업 www.bangaro.com / 방갈로.com  
TEL 063)323-3011~2 / FAX 063)323-3010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히**  
**불 전 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던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정보상대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계좌 : 농협 100023-56-156761(조영숙)